**마2027 Note (2)**

**◆ 나의 목표는 왕좌인가 십자가인가 – 변승우 목사**

1. **나의 목표는 왕좌인가 십자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생명을 내어주셨다.

권위는 왕좌에 앉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라고 주어진 것이다.

마귀의 목적 : 보좌

예수님의 목적: 십자가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다.

요0739. (그러나 그분 위에서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에 관해, 그분께서 이를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음이니,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음이라)

Ω요1216. 이것들을 그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때에 이것들이 그분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것과① 그들이 이것들을 그분께 행한 것을② 그들이 기억하니라,

Ω요1223.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니라, 이르시되, 시간이 왔으니,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하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게하심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다.

세례요한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 사도바울의 죽음

이들을 하나님은 왜 보호하지 않으시고, 죽게하셨는가?

하나님의 시각과 생각과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셨다.

예수님은 요한의 형제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허용하시나,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Ω마2022.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니라, 너희가 청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에서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 내가 침례(잠겨 하나로 됨) 받는 그 침례로 침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분께 여쭈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이 영광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마시려느냐?

우리의 시각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

누가 크냐 하며 우리는 십자가는 거절하고(베드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왕좌를 원한다.

부자청년은 재물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넘겨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고후0408. 주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항상 지니고 다니기(페리페로:지니고 다니다,갖고 다니다,앞뒤로 운반하다,운반하다) 때문에, 우리가 사방에서 고통을 당하나 그럼에도 압박당하지(스테노코레오:가까이 에워싸다,속박하다,괴롭히다,제한하다) 않으며, 우리가 당황하게 되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며,

고후0409. 핍박을 당하나 버려지지 않으며, 내던져지나 무너지지 않노니,

고후0410. 이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0411. 이는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로 넘겨짐이라. 이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수 밖에 없는 육신 안에서 또한 분명하게 나타내지게 하려 함이라.

고후0412.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1. 부흥이 우리 목표가 되면 안된다.

부흥을 일으켜도 변화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

1.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다

부흥을 꿈꾸는 자 보다, 변화되는 자가 더 크게 쓰임을 받는다.